



미 연준 장세에서 다시 코로나 장세로

■ 주간 동향: 12월 FOMC회의 큰 충격없이 마무리

- ✓ 미 연준이 12월 FOMC회의에서 긴축 기조 강화 시그널을 보냈지만 시장 우려보다는 덜 매파적이라는 인식으로 달러화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. 오히려 미국내 코로나19 재유행 리스크 부각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가 달러화 강세를 부채질함
- ✓ 유로화 가치는 소폭 하락함. 영란은행의 깜짝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유행, 특히 독일 내 심각한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해 12월 서비스 PMI 지수가 재차 50선을 하회하면서 유로화 약세 압력을 높임
- ✓ 위안화 가치 역시 소폭 하락함. 달러화 강세와 더불어 11월 주요 경제지표 부진 그리고 미국의 중국 첨단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로 인한 미-중 리스크 재부각 등이 위안화 약세 압력으로 이어짐
- ✓ 원/달러 환율은 보험 수준을 유지함. 12월 FOMC회의 결과를 무난히 소화한 가운데 주중반 이후 외국인의 국내 주식순매수 확대가 원화 가치를 지지함

〈표〉 주요국 주간 환율 동향

	12월 17일 증가	전주 대비 (%)	전년말 대비 (%)
달러화 지수	96.6	0.49	7.37
달러/유로	1.124	-0.65	-7.99
엔/달러	113.6	0.17	10.05
역외 위안/달러	6.387	0.17	-1.78
원/달러	1180.9	-0.03	8.71

■ 금주: 미 연준 장세에서 다시 코로나 장세로

- ✓ 통화정책 등 주요 빅 이벤트가 마무리되고 연말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외환시장내 변동성이 둔화될 여지가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외환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코로나19 재유행 추이임. 뉴욕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1,027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연말 소비시즌을 앞둔 미국 내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커짐
- ✓ 달러화 약세를 촉발할 수 있는 호재가 뚜렷치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및 오미크론 불확실성이 연말까지 외환시장에 가장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전망이다
- ✓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 강화 분위기와 더불어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원/달러 환율 역시 등락하는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

그림1. 미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재차 강화되는 분위기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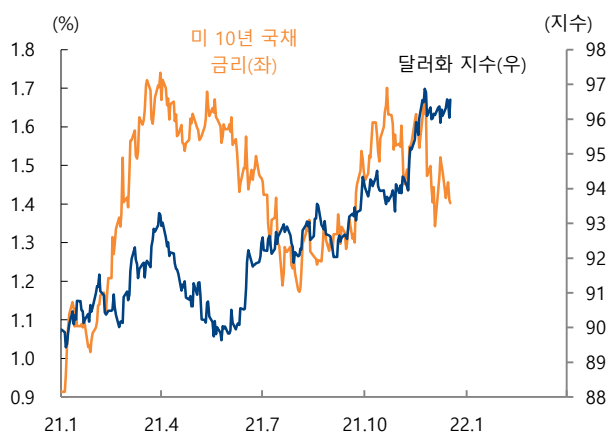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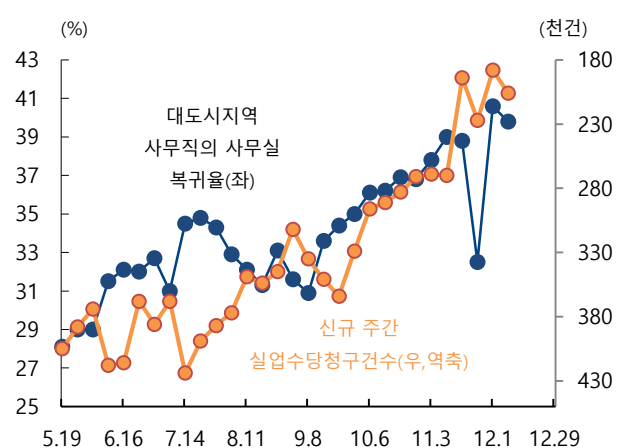


그림2. 코로나19 재유행 여파로 미국 대도시 사무직의 직장 복귀율이 다시 주춤해짐



Compliance notice

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 자에게 E-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
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